
정책참고자료

2016-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정부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10
---------------------------	----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授受)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12
------------------------------	----

3 기획재정부

능력중심채용, 올해도 공공기관이 선도합니다	15
-------------------------	----

4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교육부·산업부·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28
---	----

5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착수	35
----------------------	----

미래성장동력 2016년도 종합실천계획 추진	40
-------------------------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첫 ‘지자체 맞춤형 도서관 컨설팅’ 결과 발표	54
--------------------------------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방 소재 기업까지 추진 전략 모색한다	56
------------------------------------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59
---	----

	이동필 장관, 강원도 청년 스마트 팜 선도농가 방문	64
8	환경부	
	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66
9	고용노동부	
	201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막	79
1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1년,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배 이상 증가	84
11	국토교통부	
	1인 창조기업 찾아간다.... ‘공간정보 융·복합’ 전국 설명회	88
	무인기(드론) 대한민국을 다시 측량한다	92
12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97

정부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 주요 변화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민간전문가 자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 재난안전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관리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왔다.
- 아울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15년 3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국무총리, '15년 6회) 안전정책조정회의(국민안전처장관, '15년 6회) 등을 통해 안전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안전한 사회실현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여, 개인 소방장비는 노후율 "0"를 달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소방차와 구조장비도 계획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 소방장비 교체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개인장비	노후율 21.5%	노후율 0%	-
소방차	노후율 22.8%	노후율 19.5%	(’17년) 10.2%
구조장비	노후율 21.0%	노후율 15.0%	(’17년) 0%

- 둘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15.11.30)하였고, 방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게 기관별 재난대응수칙으로 간략히 하였으며, 소방 및 해경의 구조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 해경 민관군 인명구조훈련: (’14년) 92회 → (’15년) 252회
소방관서 긴급구조 훈련 : (’14년) 1,073회 → (’15년) 1,152회

- 셋째,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였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14년) 15,799개소 → (’15년) 16,085개소
노인보호구역 : (’14년) 697개소 → (’15년) 859개소

* 학생 안전교육 : (’14년) 학년당 34.5시간 → (’15년) 학년당 67.2시간

- 넷째, 지역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7개 분야)**를 공개하였고,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다섯째,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

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 주요 안전사고(6大 분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국민안전체감도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교통, 산재, 수난, 화재, 연안, 해상: ('14년) 7,076명 → ('15년) 6,479명

* 사회전반에 대해 “안전하다”: ('14.5) 16.0% → ('15.12) 33.5%

-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이후 주요 변화

구 분		2014년	2015년
안전예산	총 규모	12.38조원	14.67조원
	협약권	신설	시행
	소방안전 교부세	-	0.31조원(신설)
소방장비	개인장비	노후율 21.5%	노후율 0%
	소방차	노후율 22.8%	노후율 19.5%
	구조장비	노후율 21.0%	노후율 15.0%
해 경 구조장비	122구조보트	2척	4척
	수상오토바이	91대	115대
	대형헬기	1대	1대 추가도입 중
특 수 구 조 대	소방(육상)	2개 권역 (수도권, 영남)	4개 권역 (호남, 충청·강원)
	해경(해상)	1개 권역 (남해)	3개 권역 (서해, 동해)
매뉴얼 및 재난대비 훈 련	재난대응 매뉴얼	5,302개 유형별 매뉴얼	338개 기관별 1권의 재난대응수칙
	소방관서 긴급구조 훈련	1,073회	1,115회
	해경 민관군 인명구조훈련	92회	252회
	합동방재센터 화학사고 훈련	59회	99회
학 교 안전교육	학생	학년당 34.5시간	학년당 67.2시간
	교원	64,113명	194,922명
보호구역 ¹⁾	어린이	15,799개소	16,085개소
	노인	697개소	859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시 스템	국가안전대진단	-	1,071,470 개소 (52,846개소 보수·보강)
	안전신문고 ³⁾	1,486건 (처리 1,332건)	74,123건 (처리 73,210건)
	지역안전지수	-	공개(7개 분야 ²⁾)
	긴급신고전화 ⁴⁾	신고전화 20여개	3개 신고전화로 통합 추진 중
	해양교통관제센터 관리체계	이원화(18개소) (해수부, 해경)	일원화(18개소)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	시범 실시
	산업단지화학사고 위험경보제 ⁵⁾	271개 사업장	1,079개 사업장
	재난거점병원 ⁶⁾	20개	40개
현장도착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 ⁷⁾	60.0%	61.8%
	해양사고 발생시 1시간 내 대응률 ⁸⁾	75.6%	79.4%
	재난의료 지원팀 현장도착비율 ⁹⁾	66.7%	92.9%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¹⁰⁾	계	7,076명	6,479명 (잠정)
	교통사고	4,762명	4,621명
	산업재해	992명	955명
	수난사고	417명	405명
	화 재	325명	253명
	연안사고	113명	145명
	해양사고	467명	100명
국민안전 체감도 ¹¹⁾	사회전반 (안전하다)	16.0% (14.5월)	33.5% (15.12월)

- 주1) 어린이·노인 등 보호를 위해 지정대상 시설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 통행속도 제한, 교통안전·도로안전시설, 노상 주차장 설치 금지 등
- 주2)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주3) 안전신문고는 2014.9.30.부터 시행
- 주4) 긴급신고 전화 통합(3개): 긴급(범죄 112, 재난 119), 비긴급 민원·상담 110
- 주5)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의 사고위험 징후를 분기별로 수집·분석하여 사업장·지역별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 주6)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1시간 이내 응급 대응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40개소 운영
- 주7) 소방관서 출발부터 화재현장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
- 주8) 사고 신고접수부터 사고현장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
- 주9) 재난현장에서 신고후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1시간 이내 현장 도착률
- 주10) 주요안전사고(6大 분야): 교통사고(국토부), 화재(국민안전처), 산업재해(고용부), 수난사고(국민안전처), 연안사고(국민안전처), 해양사고(해수부)
- 주11)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평가(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신규직원 8명중 1명 권고사직 했다고 지원금 전액반환은 잘못

-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시켰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 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5,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 시설비 지원금(4,280여만 원) + 인건비 지원금(960만 원, 120만 원 × 8명)

이후 직원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 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 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A회사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지원금을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직원 7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5,240여만 원)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명령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授受)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공무원 징계종류(국가공무원법):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무상 상급자·인사담당자 등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시 팀장 A는 시내 주점에서 직무관련자인 B 등으로부터 약 30만원의 향응(주류 접대)를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견책 처분

⇒ 최소 감봉, 최대 해임까지 가능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우체국 직원 A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집배원 2명에게 금품을 요구, 총 100만원(각 5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여 행동강령 위반으로 **강등** 처분
 ⇒ 능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직원 A는 **파면**

아울러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하여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 이번 개정은 권익위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 층 강화한 것이다.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구 대비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개정 전→개정 후)

금 액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 <u>감봉·정직·강등</u>	<u>감봉·정직</u> → <u>강등·해임·파면</u>	<u>강등</u> → <u>해임·파면</u>	<u>해임</u> → <u>파면</u>	<u>파면</u>
	능 동	<u>견책·감봉</u> → <u>정직·강등·해임</u>	<u>정직</u> → <u>해임·파면</u>	<u>강등·해임</u> → <u>파면</u>	<u>해임·파면</u> → <u>파면</u>	<u>파면</u>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u>감봉</u> → <u>정직·강등·해임</u>	<u>정직·강등</u> → <u>해임·파면</u>	<u>해임</u> → <u>파면</u>	<u>파면</u>	
	능 동	<u>정직</u> → <u>강등·해임·파면</u>	<u>강등·해임</u> → <u>파면</u>	<u>해임·파면</u> → <u>파면</u>	<u>파면</u>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u>정직·강등</u> → <u>강등·해임·파면</u>	<u>해임</u> → <u>파면</u>	<u>파면</u>		
	능 동	<u>강등·해임</u> → <u>해임·파면</u>	<u>해임·파면</u> → <u>파면</u>	<u>파면</u>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능력중심채용, 올해도 공공기관이 선도합니다.

- 16년 능력중심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

◇ '16년에 추가로 100개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채용 도입

- 능력중심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

- 기재부(장관 유일호)와 고용부(장관 이기권)는 작년('15년) 130개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16년) 100개 공공기관이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

** '15년 130개 → '16년 230개(누적)

-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부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20개(보훈복지의료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79개(한국투자공사, 폴리텍, 노사발전재단 등) 등 총 100개이다.
- 이로써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병원, 출연연 제외)은 3개 기관*을 제외하고 올해 모두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하게 된다.

* 축산물인증원(통합예정), 국방과학연구소(직무 재설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지방이관예정)

- 정부는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공공기관을 위해 채용계획 유무, 채용 규모, 모집분야의 수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취업준비생들이 NCS기반의 능력중심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상설 설명회**와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 또한, 하반기에는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기로 하였다.

- 그간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은 취업자의 **스펙부담 감소***와 공공기관의 **채용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지질자원연구원) 영어 필수(토익 900점 이상) → 영어 기준 폐지 후 영어 성적 미보유자 합격

**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례) 중도퇴사율 감소('14년 8.9% → '15년 0%), 허수 지원자 감소('14년 4,833명 → '15년 2,263명)

- 이처럼 우리 사회에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스펙경쟁**이 사라지고, 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으며, **채용비용 및 조기이직률 감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직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 출연연** 등은 올해 도입 기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17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그동안 채용과 교육·훈련 등 NCS 활용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검증·보완을 거쳐, **6월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Industry Skills Council) '15년 기계, 화학, 경영, 금융 등 13개 분야 선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관리 수행

참고 1

16년도 신규도입 100개 공공기관 리스트

분류	'16년	선정 기관
전체	100	
□ 공기업(30)	1	부산항만공사
□ 준정부(90)	20	과학창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상산업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세라믹기술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재산 전략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 기타(203)	79	교육과정평가원, 생산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전기연구원, 가축방역지원본부, 법률구조공단, 적십자사, 폴리텍, 해양과학기술원, 건강가정진흥원, 건설관리공사, 국방연구원, 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대한체육회, 문화진흥주식회사, 발명진흥회, 법무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재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저작권위원회, 체육산업개발, 한국투자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전번역원, 공예디자인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원산지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데이터베이스진흥원, 도박문제관리센터, 동북아역사재단, 문화관광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기업진흥원, 상하수도협회, 수치예보모델사업단, 어촌어항협회, 여성인권진흥원, 연구개발특구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워터웨이플러스, 원자력문화재단, 잡월드,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체육회, 재외동포재단,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연구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태권도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항공안전기술원, APEC기후센터, 기초전력연구원, 대구과학관, 문학번역원, 문화정보원, 식물검역인증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이민정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창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이란?

- 채용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직무능력 :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인 ‘직업기초능력’,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직무수행능력’ 등으로 구성

2 전형별 주요 변화

구분	기존 채용	능력중심 채용
채용 공고	■ 행정직 00명, 기술직 00명 등 단순 기초정보 제공	■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명세(NCS기반), 채용전형 등 사전 공개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자료’ 첨부)
서류 전형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 본적, 취미·특기 등) ■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봉사, 토익 등) ■ 자전적 자기소개서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 ■ 직무관련 스펙 (직무관련 교육·자격·경험 및 경력 등) ■ 직무관련·경험 중심 자기소개서
필기 전형	■ 인성·적성 평가, 단순지식 측정 필기시험 등	■ 직무능력 측정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관련 상황 및 문항 설정)
면접 전형	■ 비구조화 면접(취미, 성장배경 등 직무무관한 일상적 질문)	■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 (직무관련 질문 및 유형으로 구성)

참고 3

능력중심채용 전·후 비교

<1> 채용공고

① 기존 채용공고

- 모집분야에 대한 명확한 직무 관련 정보, 평가기준이 없었음
- 취업준비생은 해당분야에 지원하기 위해 무분별한 스펙 (over-spec)을 쌓아왔음

○ 신입직원		
모집부문	인원	지원자격
일반사무직	○○ 명	•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 졸업자 • 연령 및 전공 제한 없음
○ 경력직원		
모집부문	인원	지원자격
전 산	○ 명	• 금융회사(금융회사 IT자회사 포함) IT업무 10년 이상 경력자 (IT개발업무 최소 5년 이상 경력 충족)
보험조사	○ 명	• 경찰업무(수사업무) 7년 이상 경력자 • 보험사기 수사 경력자 우대
※ 공통요건 : 당 협회「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NCS 기반 채용공고

- 지원자가 입사 후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였음
- '직무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취업준비생들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스펙(on-spec)만을 준비하도록 안내

01 선발개요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구분	사무 직무소개서	기계 직무소개서	전기 직무소개서	화학 직무소개서	계
채용형 인턴 대졸수준	10	19	17	26	72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	구분	배점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 NCS 역량기반 지원서	'15.12.16(수) 13:00 ~ 12.30(수) 17:00
			• 1차 전형 일정 및 대상자 발표	'16.01.06(수)
1차	직무지식 평가 (한국사 포함)	100	• 전공지식 80문항, 한국사 20문항 [객관식 출제] • 전공 출제범위 - 사무직군 : 법정, 상경 선택 응시 - 법정 : 법학, 행정학 - 상경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 그 외 직군 : 지원분야 기사 수준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16.01.09(토) - 장소 : 서울
2차	NCS 기초능력평가/WATT ¹⁾	100	• NCS 기초능력평가 : 50점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 • WATT : 50점 • 회사 필요역량과 성격유형 평가	'16.01.16(토) - 장소 : 서울
3차	NCS 기반 역량구조화 면접	100	• 개별인터뷰 : 50점 • 직무상황면접 : 50점 - 직무관련 상황 부여 후 직무수행능력 평가	'16.01월 말
4차	신원조회/신체검사	-	• 적부 판정	'16.02월 초
합격자 발표	-	-	• 최종 합격자 발표	'16.02월 초 '16.02월 중순

【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기술직(전기) 】

채용분야		기술직(전기)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9. 전기전자	01. 전기	06. 전기설비설계·감리	02. 전기설비감리
14. 건설	01. 건설공사관리	03. 건설시공후관리	01. 유지관리
기관 주요업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건강검진사업, 의료시설 운영 등 제반 업무		
능력단위	○ (전기설비감리) 01. 감리업무 수행계획, 02. 감리여건 제반조사, 04. 전기설비감리 시공관리, 05. 전기설비감리 품질관리, 06. 전기설비 감리 공정관리, 07. 전기설비감리 안전관리, 10. 전기설비 설계 감리 업무 ○ (유지관리) 01. 유지관리 계획 수립, 02. 유지관리 행정업무 수행, 08. 보수·보강시공관리, 10. 보수·보강 후 성능관리 시행, 11. 유지관리보수·보강 후 시설물 이력정보관리, 12. 유지관리 개선사항 피드백		
직무수행내용	○ (전기설비감리) 자가 용전기 설비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 ○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해 점검, 진단, 정비를 일상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 향상 및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전형방법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임용		
일반요건	○ 무관		
교육요건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필요지식	○ (전기설비감리) 전기설계 전반적인 학술지식, 해당공사 관련 법령 지식,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와 신고범위 관련지식, 공사내역서, 시공도면 관련 지식, 건축 공사 예정공정표 관련 지식,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공해 관련지식 등 ○ (유지관리) 시설물별 건설 재료,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지식, 유지관리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안전점검에 대한 기초 지식, 확률 및 통계 관련 지식, 국내품질기준(KS, RS 등) 및 국제품질기준(ISO, ASTM 등)에 대한 지식, 유지관리 공정에 대한 지식 등		
필요기술	○ (전기설비감리) 제작도면 검토기술, 기자재 제작시방서 검토기술 하도급업체의 타당성 검토기술, 관련 공종의 설계도면 이해와 검토기술, 공사비 내역서 분석 능력, 건축공사 및 타 공종의 공사흐름 분석 능력, 유사 프로젝트 자료수집 및 분석 능력,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능력 등 ○ (유지관리) 설계 및 준공도서 해석 능력, 현장 지형도 및 환경 분석 능력, 통계 관련 프로그램 활용 능력, 회계 분석 능력, 구조안전설계 프로그램 사용 능력, CAD 활용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안전사항 준수 노력, 관련 문서 및 지침에 대한 세밀한 검토 노력,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방안 노력, 기술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태도,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사고 등		
필요자격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참고사항	○ 참고사이트: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2> 서류전형

① 기존 입사지원서

- 해당 직무 및 실제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기재
- 사진, 나이, 본적, 출신학교, 학교소재지, 특기, 가족관계, 신장, 몸무게, 해외경험 등

입사지원서										
사진	한글	이 한국			지원회사	대한은행				
	한자	李 韓 國			지원구분	신입				
	주민등록번호	850915-1234567			지원부문	① 영업 ② 마케팅				
	생년월일	1965년 09월 15일	만26세	희망근무지	① 서울	② 경기	희망연봉		내구에 준함	
연락처	현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한국아파트 101동 201호								
	본 적	경기도 화성시 장남면 21-2	전화번호	031-423-4567						
	E-mail	hankook@naver.com	휴대폰	010-1234-5678						
학력사항	기간	출신학교	전공	졸업여부	소재지	학점				
	2004.03~2007.02	한국고등학교	한문	졸업	서울					
	2007.03~2011.02	한국대학	경제학	졸업 예정	경기	3.54/4.5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2008.02~2008.05	Paul&Mark	아르바이트	자료 정리 및 사무 행정 처리						
	2006.12~2007.02	정철어학원	아르바이트	학원생 등록 및 관리						
특기사항	외국어능력	TEST명	점수(등급)	취득시기	자격/교육	자격명	발급기관	발급일		
		TOEIC	670점	2009.06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서울지방경찰청	2006.2		
		JLPT	2급	2006.05		MOS Master	Microsoft	2010.03		
	해외경험	기간	지역	내용	교육기관	교육명				
		2010.8~2010.9	일본	여행		한국대학	리더십 및 스피치 훈련			
		2009.8~2009.9	미국	단기연수		사람인	영업 직무 역량 향상 교육			
	병역	군별	외경	병과	운전	제대구분	만기제대			
		복무기간	2007.06~2009.06(24개월)			면제사유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출신학교	근무처	직위	동거여부	기타사항		
	부	이석준	61	한국고	한국기업	이사	Y	보훈여부	비대상	
	모	김소현	58	한국여고	주부		Y	장애여부	무	
	자	이대한	28	대한대학	창의전자	대리	Y	장애내용		
	자	이민국	18	하늘고	-	학생	Y	결혼여부	미혼	
								신장	180cm	몸무게

※ 위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NCS 기반 입사지원서

-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
-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혹은 경험사항 등 직무 관련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월/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2. 교육사항(모집대상 직무와 연관이 있는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등		
• [경영기획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경영평가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사무행정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지원기관의 직무관련 업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주요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도로공사-도로관련 교과, 소비자보호원-소비자관련 교과, 인력공단-인력개발 관련교과 등)	예() 아니오()	
• [사업행정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34개 하위영역 중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정보능력, 사고력 등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교육 과목(직업기초능력 포함)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예시) 과목 1. 문헌정보학 입문 →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과목 2. 한국어 의미의 이해 → 문서이해 및 문서작성능력, 과목 3. 철학개론 → 사고력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교육
교과목명	학점 (내신 등급)	교과목명
		이수시간(h)

3. 직무 능력 관련 자격 사항 (NCS 내 환경분석의 자격현황 참고)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직무 관련 자격	
※ 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기타자격이 포함됩니다.	

4. 경력 혹은 경험사항(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경력 혹은 경험사항)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 / 역할	담당업무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등		기타 활동경험	
수행평가 내용	과제내용	소속조직	주요역할

<3> 필기전형

① 기존 필기평가

-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일반상식, 인·적성, 다양한 지식 평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필기전형 예시>

시험과목	출제범위	유형	문항
영어(40분)	어휘력, 독해력	객관식 (4지선다형)	각 40문항
일반상식(40분)	정치외교, 법률, 경제, 회계, 역사, 사회, 지리, 환경, 예술 등		
전산학(40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제 등		

<인적성 예시>

- 다음 문자 배열을 보고 일정한 규칙을 찾아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ㅅ	ㅅ	ㅅ	ㅅ	ㅅ	ㅅ	?
---	---	---	---	---	---	---

- ① ㅅ ② ㅅ ③ ㅅ ④ ㅅ

- 다음 제시된 단어와 같은 관계인 것을 고르시오.

명함 : 자기소개

- ① 희곡 : 문학 ② 현미경 : 관찰
③ 절약 : 정신 ④ 수화기 : 전화기

② NCS 기반 필기평가

- '직무 설명자료'에서 제시되는 직무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

* 예시: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필기, 논술, 직무수행능력평가 등(기본전제: 직무 관련성)

<직업기초능력평가 예시 : 정보능력>

귀하는 인사팀에 근무한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직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정보관리 방법을 모색할 상황이다. 아래 [자료]는 글로벌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보관리 방법이다. 귀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어떤 방법일까?

글로벌 코리아의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코리아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A씨는 주요 키워드나 주제어를 가지고 직원들을 구분하여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직원은 수천 명이지만 검색어에 따라 직원들의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다 보니 찾을 때도 쉽고 내용을 수정할 때도 보다 간편하게 되었다.

- ① 목록을 활용한 정보관리
- ② 색인을 활용한 정보관리
- ③ 분류를 활용한 정보관리
- ④ 1:1 매칭을 활용한 정보관리

<직무수행능력평가 예시>

다음 업무 상황에서 사원 Y씨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동차 부품 회사 해외영업팀 사원 Y는 아래 기사와 관련된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영업팀 팀장은 사원 Y에게 미국에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국가표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일보 제 12333호 | 2015년 00월 00일 화요일

연락처: 02-000-0000 | <http://www.00P.com>

한·미 FTA, 4년차 효과?

한국산 자동차 부품, 미국 수출 대폭 확대

한미 FTA 4년 차를 맞아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공황거리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자동차 부품 관련 항목의 미국 수출 규모는 작년에 비해 최대 5~6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미국으로 수출 확

대 가능성을 염두하여 발빠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있다. 이 회사는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 중 OEM 납품 경험에 있는 한국 기업을 물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자 LEE9327@00P.com

① BS

② GB

③ JIS

④ ANSI

<4> 면접전형

① 기존 면접전형

-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대화 위주
- 입사지원자의 첫인상,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됨에 따라 면접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 자기소개 및 자신만의 장점은?
- 우리기관 지원동기?
- 술을 잘 마시는지? 또는 주량은 얼마나 되는지?
-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은?
-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 고민이 있을 땐 누구와 상의하는가?
-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의 유형
- 배낭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곳은?
- 좌우명이 있다면?

② NCS기반 면접전형

- 직무설명자료에서 제시되는 직무능력을 지원자가 갖추었는지를 다양한 면접기법*으로 평가

* 경험면접, 상황면접, PT면접, 토론면접 방식 활용

- 경험면접: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 상황면접: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평가함으로써 실제 업무상황의 행동을 예상
- 발표면접: 특정주제와 관련된 지원자의 발표를 통해 역량 평가
- 토론면접: 제시한 토의과제에 개한 토론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의사소통능력 평가

<상황면접>

상황 제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사무실, 통신탈, 식당, 전산실, 창고, 면세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 상황에 기반함
	금년도에는 소방배관의 누수가 잦아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번 공사의 담당자입니다.	배경 정보
	주간에는 공항운영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로 야간에만 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시공하는 기능공의 실수로 배관 연결 부위를 잘못 건드려 고압배관의 소화수가 누출 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시설물에는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
문제 제시	1. 일반적인 소방배관의 배관연결(이음)방식과 배관의 이탈(누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 문항
	2. 담당자로서 본 사고를 현장에서 긴급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보수완료 후 사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문항

<발표면접>

의료기기 제조회사로 연매출은 약 600억 원이다. 제조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작년 50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지만 영업순이익은 인원을 채용한 이래 계속 해서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제품이 생산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십시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교육부·산업부·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3개 부처 합동 NCS 순회설명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이준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4.6(수)~4.20(수)까지 약 2주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15년까지 847개 NCS 개발 완료

<NCS 부처합동 설명회 개요>

- 지역별 개최일자 : 울산(4.6), 인천(4.7), 충청(4.7), 경기(4.12), 대구·경북(4.12), 전북(4.12), 서울(4.15), 경남(4.19), 광주·전남(4.19), 부산(4.20)
- 장소 :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 (참고1. 참조)
- 참석자 : 기업대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계자 등 지역별 평균 45명 내외
- 주요내용: NCS 기업 활용방법(고용부), NCS 기반 교육과정 안내(교육부) 등

- 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금년 3월부터 적용)을 계기로 NCS 민간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NCS 이해 및 활용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간 협력체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 미니클러스터(MC) : 산단내 산·학·연 네트워크로, '16.3월 현재 전국 32개 산단에 78개 MC(기업 6,408, 대학 757, 연구소·지원기관 958개 참여) 구성·운영 중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및 기업 활용방법”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참고2. 참조)
- 설명회를 계기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해당지역 미니클러스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NCS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에서 교사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3.)

- 교육부는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직업교육이 아닌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학교가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 만큼,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전국 10개 지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개최된 인천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 (일시/장소) ‘16.4.7(목) 16:00~18:00, 산단공 인천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참석자) 기업대표(100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계자(25명) 등 130명 내외

- “기업들이 NCS를 기반으로 한 인재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참고 1. NCS 부처합동 설명회 전체 일정(안)
참고 2. NCS 부처합동 설명회 발표내용(요약)
참고 3. 미니클러스터(MC)-직업계고교 연계(안)

참고 1

NCS 부처합동 설명회 전체 일정[안]

순번	지역	일 시	장 소	연계 행사명
1	울산	4.6(수) 16:00 ~ 18:00	신라스테이 호텔	자동차그린기술 미니클러스터(MC) 정기총회
2	인천	4.7(목) 16:00 ~ 18:00	산단공 인천본부 5층 대회의실	자동차모듈MC 정기세미나
3	충청	4.7(목) 15:00 ~ 18:00	대부도 펜션타운	충청권(천안) 미니클러스터 연합 워크숍
4	경기	4.12(화) 16:00 ~ 18:30	산단공 경기본부 2층 대회의실	그린 M&S MC 정기총회
5	대구 경북	4.12(화) 16:30 ~ 18:10	지역본부 청사 컨퍼런스룸	E&H MC 기술세미나
6	전북	4.12(화) 16:30 ~ 18:00	군산자유무역관리원 3층 소회의실	군산자유무역지역 MC 세미나
7	서울	4.15(금) 16:00 ~ 18:00	G밸리 컨벤션홀	BIC MC 정기총회
8	경남	4.19(화) 16:00 ~ 18:00	산단공 경남본부 5층 회의실	방산MC사업계획수립 및 설명회 개최
9	광주 전남	4.19(화) 17:00 ~ 18:30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5층 중회의실	광통신 MC 기업애로발굴 해결 포럼
10	부산	4.20(수) 15:00 ~ 18:30	플라밍고 호텔 11층 루비홀	제1회 동남권 LNG산업 사업화 포럼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및 활용 [고용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의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 훈련(폴리텍, 훈련기관)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

□ 기업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 (능력중심채용) 기존 스펙중심의 채용과는 달리 대상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재를 선발(NCS 기반)

- * ① 채용공고: 직무분석을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직무수행 내용, 필요능력, 자격 등)
- ② 서류전형: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 스펙만 기재
- ③ 평가: 필기와 면접전형은 '직무관련성'을 기본전제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 활용

⇒ 신입사원 채용 시 해당 직무 적임자 채용으로 재교육비용 감소,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위한 무분별한 스펙쌓기 지양

- (재직자 훈련) 직무기술서 작성, 근로자의 사내경력개발경로 설계, NCS 기반 수준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 더 나아가 배치·승진, 임금 등 전반적 인사관리까지 활용 가능

⇒ 과학적 인사관리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

□ 기업지원 컨설팅

- (개요) 중견·중소기업이 NCS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훈련 및 능력중심채용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

- * 컨설턴트(3명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팀을 구성하여 NCS 기반 직무분석 이후 재직자 훈련과정 개발 및 채용 프로세스 설계

- (참여)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교육부)

□ 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 의의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채용 및 인사관리가 학벌·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
- 이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 NCS 기반 교육과정과 학교의 변화

- NCS 기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을 ‘아는 교육’에서 일-학습-자격이 일체화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
- 학교는 학문 중심에서 인력양성 유형 중심의 과목 편성으로,
 - 이론 위주 수업에서 현장직무 수행을 위한 실습 위주 수업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 채용이 수월해지며, 신입 직원의 재교육 비용 및 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 현장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전문가, 교육자료 공유 등 학교와 산업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NCS에 기반한 채용, 인사관리, 승진, 처우 개선 체제 마련 필요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통해 NCS 기반의 교육, 훈련, 자격 및 경력을 서로 인정하는 체제 마련

참고 3

미니클러스터(MC)-직업계고교 연계(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회원 참여(3월~)

○ MC 정기회의(매월 1회 이상)에서 고교 NCS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 피드백(교육과정 개선 등)

< MC-고교 매칭(예) >

지역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	고등학교	산업
서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디지털콘텐츠MC	-	미림여자정보과학고교	뉴미디어콘텐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정보융합부품MC	-	인천전자마이스터고교	전자
경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메카트로닉스MC	-	안산공업고교	자동차·기계
충청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반도체MC	-	충북반도체고교	반도체장비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	전자부품금형MC	-	구미전자공업고교	전자
부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플랜트MC	-	부산기계공업고교	플랜트·기계
울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생산기반MC	-	울산마이스터고교	기계·자동화
창원	사천일반산업단지	항공·우주MC	-	삼천포공업고교	항공
광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스마트전자MC	-	(미정)	자동화설비
군산	군산국가산업단지	기계조선부품소재MC	-	군산기계공업고교	조선·기계

* **음영** 표시한 5개 MC는 고교 회원가입 기 완료. 나머지 5개 MC는 협의 진행 중

- NCS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연중)

○ MC 회원기업 대상 NCS기반 실무과목교사 현장연수(‘16년 50개 기업)

* 현장실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기업체 확보 및 현장 실무 연수 운영 지원(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연계)

* 발굴된 기업체 현황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공(NCS기반 교육과정 적용지원단 진로교육체험망에 인력풀 탑재), 직업계고교교사 현장연수 참여 기회 제공

○ 클러스터 국비 지원과제* 수행시 NCS 교육수료 학생 적극 활용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16년 587억원) : 산단입주기업 주관으로 산업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시장진출, 교육훈련 등 공동과제 수행

□ (참고) 전국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MC) 현황

광역	거점단지	산학연합의체(MC)
서울 (5)	서울	디지털콘텐츠, 그린IT, ICT, IT융합메디컬, BIC(Big Data lot, Cloud)
인천 (6)	남동	생산기반부품, 산업기계부품, 정보융합부품, 자동차모듈, 미래형융복합부품소재(외부)
	부평주안	SMT
경기 (6)	반월시화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그린M&S, 정밀화학, 스마트 컨버전스(외부)
충청 (8)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산업소재부품, 충남농공
	청주·오창·오송·충주	반도체, 신재생전지,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기계부품소재
대경 (12)	구미	에너지디스플레이, 모바일, E&H, IT장비, 전자부품금형, 경북농공, 3D프린팅
	성서·경산	기계금속소재, IT전기전자, 바이오융합소재, 지능형자동차부품, 기계자동차
동남 (17)	창원·김해	공작기계, 기계부품,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경남농공, 마산녹색, 지식융합기계
	울산	생산기반, 자동차그린기술, 그린소재
	녹산·신평장림	조선해양기자재,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신기술융합플레이팅
	사천·양산	항공우주, 성형가공
호남 (18)	광주	광통신, 광융합, 스마트전자, 산업기계, 의료부품소재
	군산	자동차부품소재, 그린부품소재, 기계조선부품소재, 군산농공, 군산자유무역
	대불	조선해양부품, 해양레저, 나주농공, 제주농공(바이오)
	익산	오토엔일렉파트, 탄소융합부품소재
	여수·광양	석유화학융합소재, 철강금속소재
강원 (5)	원주	의료기기, 의료바이오, 강원농공, SLC(Safe Life Car)
	북평	융복합신소재, 기능성바이오
합계		78개 MC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착수

-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지역 연구개발 수요 및 인력수요 발굴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최대 15억 지원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기업에 연계하기 위해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 최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15.12.16)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소재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신산업분야에서 지역기업이 수요를 제기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지역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석·박사 학생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학생연구원이 지역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신산업분야*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 및 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및 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채용을 추진한다.
-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중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략적으로 선택

□ 올해에는 대학-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최대 15억원까지(연구개발 과제당 1억원~1.5억원)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5월 2일(월)까지 접수 받는다.

○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및 대학·기업 연구자를 대상으로 4월 5일(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사업설명회(일시/장소) : 4월 5일(화) 15시/대전(한국연구재단)

□ 미래부는 “지역인재가 우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고 지역기업에서 활발히 연구하면 지역 산업이 더욱 튼튼해지고 고용도 늘어나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새로운 창조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으로 취업 연계
-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mismatch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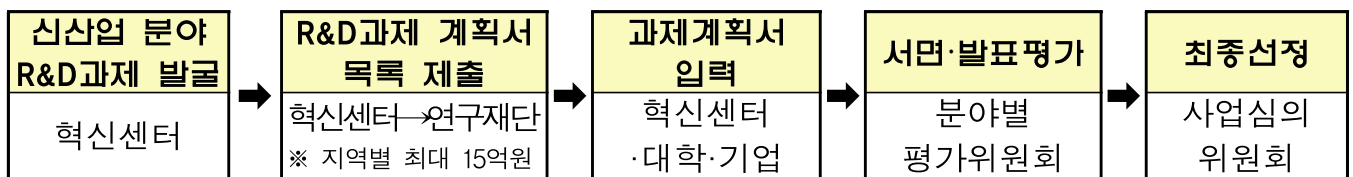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사업비) 2016년 100억원(미래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견기업은 총 사업비의 40%이상(현물+현금), 중소기업은 25%이상(현물+현금) 매칭 별도부담
- (지원과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15.12월, 지역경제발전방안)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서 지역기업이 수요를 제기하는 R&D과제
 - (연구개발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R&D 후보과제군을 발굴·제안
 - ※ 각 지역(시·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이 공동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은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결정
 - ※ 과제계획서에 학생 연구원에 대한 취업(고용) 지원계획 포함
 - (공동프로그램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취업연계, 산학협력 지원, 과제성과 관리 등 공동 프로그램 과제 제안
- (지원규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안한 R&D과제군 및 공동프로그램 과제에 지역별 정부지원금은 연간 최대 15억원 지원
 - 개별 R&D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1.5억원, 공동프로그램과제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6천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2년+1년)으로 하고, 과제특성에 따라 단기(1년) 지원도 가능
 - ※ 포함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통합하여 신청

○ 취업연계 방안

- (취업고용 의향서) 학생연구원과 참여기업 간 취업-고용 의향서를 통해 공동연구를 고용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적용 추진
- (취업연계체제 구축)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 지역기업 등의 구인수요와 연구인력의 구직수요를 매칭하고 인턴십 등을 통해 채용을 촉진(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활용)

□ 추진절차



- (평가방향) 인력양성 및 취업(채용) 계획, 지역신산업 육성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연차평가 실시

< 주요 선정평가 항목 >

대 학·기업(연구개발 과제)	혁신센터(공동프로그램)
• 연구개발 필요성 및 지역신산업 분야 적합성 • 대학(학생) 취업 및 기업의 채용 계획, 인력양성 효과 • 대학-기업 협력 및 혁신센터와 연계 방안	• 인력양성·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계획 • 지역 대학·기업·지자체 연계 협력 • 성과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취업·고용 촉진을 위하여 참여기업이 산학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 가점 부여(1~3%)

□ 2016년 추진일정

- 사업공고('16.3.31 ~ 5.2) → 사업설명회(4.5)
 - 지역신산업분야 기업수요 연구개발과제 발굴(혁신센터, 4월초) → 지역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목록 제출(혁신센터→연구재단, ~4.20일) → 과제계획서 개별 입력(혁신센터·대학·기업, ~5.2일)
- 선정평가 및 과제 선정(5월) → 협약 및 과제착수(6월~)
 - 과제 별로 분야별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분야(예시)

지역	전담기업	지역전략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산업·분야	
서울	CJ	-	도시 라이프	- 민간 창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도시 생활스타일 분야 사업화 지원 - 전국 혁신센터 연계 거점
		-		
인천	한진	-	물류	- 첨단 물류 기반 신산업 창출 - 중소·벤처 수출 물류 지원 - 중국 진출 플랫폼 구축
		-		
부산	롯데	· 해양관광	유통·영화	- 기획·마케팅 등 상품성 제고 및 유통판매망 지원 -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 스마트시티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삼성	·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섬유	-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산업 지원 - 창조경제단지 등 창조경제 공간 조성 - C-lab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창업 지원
		·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산업		
광주	현대차	·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자동차	- 자동차 산업 창업 중심지로 육성 - 수소경제 진입의 주도적 역할 -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사업 추진
		·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SK	· 첨단센서	ICT	- 벤처 육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ICT·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산업의 첨단화 - 출연연·대학·전담기업 보유기술 공개 및 사업화
		· 유전자약		
울산	현대중공업	·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조선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재도약 - 첨단 의료자동차를 신산업으로 육성 -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 3D프린팅		
세종	SK	·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농업	- 농업+ICT '창조마을' 고도화 - 스마트 로컬푸드, 두레농장 등 도농상생 실현 - 대덕단지 협업,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
		-		
경기	KT	-	게임·핀테크	- ICT융합 신산업 창출 - 창조경제의 글로벌 진출 허브 -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중소·벤처 육성
		-		
강원	네이버	·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 빅데이터 산업의 요람 -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 - 관광, 헬스케어, 농업 등 혁신 지원
		· 관광		
충남	한화	· 태양광	태양광 에너지	-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 전국 혁신센터의 무역 허브 - 농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지원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LG	· 바이오의약	바이오·뷰티	- K-beauty, 의료기기 등 바이오 창업 지원 - 친환경 에너지사업의 산업화 - 특허지원창구 설치 및 확산
		· 화장품		
전남	GS	·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	농수산물	- 농수산물 벤처 창업·육성의 통합 거점화 - 웰빙 관광산업 육성 -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 드론		
전북	효성	· 탄소산업	탄소 섬유	-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전통문화·농생명 자산 활용 창업 및 사업화 - 기술금융 종합지원 체계 구축
		· 농생명		
경남	두산	· 지능형 기계	스마트 기계	- 메카트로닉스 허브 - 대체수자원 산업 육성 -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북	삼성	· 스마트기기	스마트 팩토리	- 노후단지의 창조산업단지 전환 지원 - 중소기업의 신사업 영역 개척 지원 -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화 지원
		· 타이타늄		
포항	POSCO	-	에너지·소재	- 에너지·환경·소재 분야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 에너지절감형 ECO 산업단지 조성 -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		
제주	다음 카카오페이	· 스마트관광	IT 관광	- 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허브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전기차 인프라		

미래성장동력 2016년도 종합실천계획 추진

- 19대 미래성장동력의 맞춤형 투자전략 등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에 중점
-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16년 약 1조원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손욱)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수출 1천억불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

□ 이번 2016년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서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16년 약 1조원(9,7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중점하고,
 -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₂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로 실증·원천기술 R&D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하여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AI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기술, 센서기술, 소재기술 등

② 미래성장동력 주력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은·기은·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국제무역분류(HS)에 따른 업종·품목분류(안)

-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③ 미래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형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 R&D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챌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④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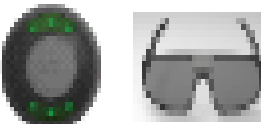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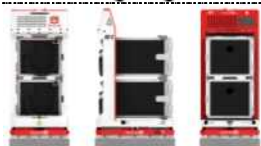
분야	'16년 주요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억원)		지원전략
5G 이동통신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Pre-5G 시범망 구축 등	1,015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지원
스마트자동차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구간 구축 등	518	
실감형콘텐츠	대화면(10인치)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시스템 실용화 등	645	
착용형스마트기기	패션·안전·의료 등 타산업과 접목 확대 등 (ex :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식 기술 개발)	207	
지능형사물인터넷	공공주택 소셜 IoT, U-City 체험 등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제공 등	768	
지능형반도체	국내 자체개발 CPU를 적용한 시스템반도체 기반 제품개발 등	738	
고기능 무인기	전력설비점검, 무인기 물품 배송 등	499	원천·실증 R&D 선제적 투자
지능형 로봇	병원 물류로봇, 복강경 수술로봇 등 의료·건강관련 로봇 시제품 생산 등	743	
빅데이터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판매하는 데이터 중개사업 모델 개발(ex : 데이터스토어) 등	243	
융복합소재	3D프린팅 활용 항공기, 자동차 등 부품화 기술 개발(ex : 티타늄 소재) 등	866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북해 유전 및 서호주 가스전 해저·해상 공정 모델링 등	505	민간기술개발 및 사업화 속도 지원
가상훈련시스템	가상훈련 몰입형 요소기술(코어엔진 등) 개발 등	66	
맞춤형웰니스케어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웰니스 IT기기 개발 등	583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일회용 세포배양시스템 개발 및 바이오의약품 후보 물질 확보 등	384	중장기 R&D 및 실증 지속지원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도심형 충전 시스템 개발 등	878	
재난안전관리	강우 및 해안 침수·범람 예측기술 개발 등	598	
직류송배전	중급 전압(MVDC급) 직류배전 시스템 기초연구 등	157	
초임계CO ₂ 발전	초임계 CO ₂ 발전 핵심기기 및 설계 기술개발 등	124	
첨단소재가공	탄소섬유기반 복합재 설계·가공 원천기술 개발 등	199	
총 계		9,736	

□ 금일 회의를 주재한 손욱 위원장은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 “미래성장동력이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 그간의 추진실적

□ R&D·제품개발 주요실적

그간 주요 실적	
[스마트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칙*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도('15.하) 마련 및 제1호차 운행 허가 ('16.3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실감형콘텐츠] 영화관 양쪽 벽면까지 3면을 상영하는 다면 상영시스템(스크린X) 개발·상용화	
[착용형스마트기기] K-ICT 디바이스랩을 구축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전담 지원 ※ 수도권(판교), 대경권(대구), 전라권(전주), 충청권(오창) 개소	
[무인기] 무인기 시범사업 전용구역 5개* 지정('15.하), 전기동력 태양광 무인기 EAV-3 국내 최초 성층권 비행 성공('15.8월) *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대구 달성, 부산 해운대, 전북 전주	
[지능형사물인터넷] 'IoT 혁신센터'를 통해 국내외 기존 기업과 협력하여 Io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 이노온(주차장공유서비스), 더알파랩스(스마트글래스), 나래IoT(화재예방)	
[5G 이동통신] 5G 후보기술들을 활용하여, Pre-5G 서비스를 ETRI('15.12월), 지하철 8호선('16.1월)에 시범서비스 실시	
[지능형로봇] 병원용 물류로봇시제품 2종(대용량,저용량) 개발 ('15.11월), DARPA 재난대응로봇 경진대회 우승('15.6월)	

□ 주요 정책 추진실적

그 간 주요 실적	
전략적 지원확대	·핵심 R&D사업 예산 증액 (IoT융합기술 202%, 자동차등육상수송 38%) ·신성장동력 R&D세액공제 확대 적용 (당초 11개 분야 65개 기술 → 변경 12개 분야 75개 기술)
추진체계 강화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재구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10명) ·추진단장 협의회 구성·운영 ('15.5월~, 월1회)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위원회 운영
소통강화· 체감도 제고	·분야별 민간전문가 포럼인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 개최 (총18회) ·자율주행차·무인기를 실도로에서 시연하는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개최로 신기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15.11월)

2. '16년도 정책방향

◆ 본 궤도에 진입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을 촉진

- 분야별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
-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① 유형별 투자전략 마련·추진

○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진출을 촉진

- (그룹1: 민간주도) 민간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뒷받침하여 조기성과 창출에 주력

* 스마트카 : 자율차 안정성 평가기준 마련, 실도로 평가환경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 (그룹2: 정부+민간)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천·실증 R&D 등에 선제적 투자

* 무인기 : 서비스 실증 인프라 구축, 보안기술 개발, 무인기 조종 면허·보험 제도 정비

○ 산업화에 시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발전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

- (그룹3: 민간+정부)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차질없이 지원

* 웰니스케어 : 웰니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웰니스기기 표준화·인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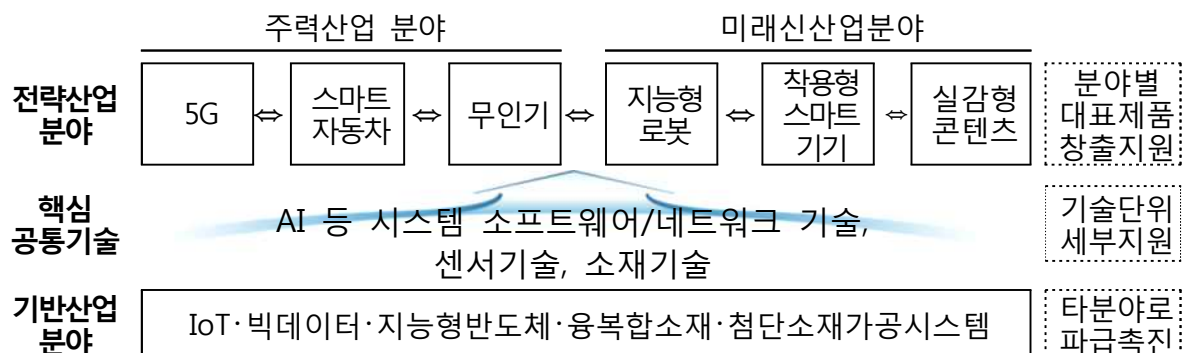
- (그룹4: 정부주도)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R&D 및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직류송배전 : 원천R&D 및 실증단지 구축 지원, 전문연구인력 양성

○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산업분야와 기반산업분야 간 공통기술* 발굴 및 지원도 강화

* AI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기술, 센서기술, 소재기술

《미래성장동력 융합산업 생태계 예시》



○ 미래성장동력 사업체계 개편

- 부처내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을 분야별 특

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하여 예산 투입효율성을 제고

- '고속수직이착륙무인기' 분야는 '고기능 무인기'로 확대 개편

* (범위) 틸트로터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 무인기 전반,
(책임부처) 산업부 → 미래부·산업부·국토부

②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 민간의 성장동력 발굴·육성 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 R&D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성장동력 분야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중견기업 공제비율 확대도 검토(예시: 20→25%)
 - 미래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책금융기관(기은, 산은 등)에 제공
-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IoT, 빅데이터 등)를 지속 발굴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분야(스마트카, IoT, 웰니스케어 등)의 경우 규제프리존을 활용하여 사업활동 적극 지원
 - ※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
- 19대 분야별 품목분류체계 구축 및 산업실태조사 추진, 공공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관련 신제품·서비스 반영 추진

③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개발 등 분야별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사업 본격 추진
-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16.하, 챌린지 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 시연 프로그램 예시 >

분야	주요 내용
실감형미디어	① 옥외건물 대상 '미디어 파사드', ② 야외 특설무대 홀로그램 공연
지능형로봇	① 휴머노이드 로봇, ② 개인 서비스용 로봇, ③ 4족 견마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① 외골격·착용형 로봇, ② ICT 기반 착용형 기기, ③ VR 로드쇼
기타 융합·복합	① ICT 기반 개인용이동수단, ② 신개념 개인이동기기 로드쇼

3. 분야별 실천계획(요약)

① 5G 이동통신 (미래부, 방통위 등)

- 목표 : '20년까지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제공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1,015억원)



- '17년 평창프리올림픽 시범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 ※ 이동통신과 고속 이동체 지원 무선백홀 시스템 결합 통한 기가급 이동통신, 5G 시범망 구축 및 C-P-D-N연계 시범서비스 실증계획 수립
- 중소기업의 정부 5G R&D과제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중소·중견 기업 선발 및 육성을 통한 대기업과의 사업화 연계 지원체계 구축

② 스마트자동차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등)

- 목표 : '22년까지 글로벌 스마트카 산업 3대 강국 실현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518억원)



- 자율주행차 실도로 평가환경 및 정밀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항 제·개정(안) 도출
 - ※ 일반국도 2개 구간(133km) 정밀도로지도 신규 구축
- 스마트자동차 주행 인프라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 확보 지원
 - ※ 스마트센싱 시스템,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 고도화, 딥러닝 기반 보행자 인식 등 ICT인프라 기반 주행환경 인지 기술 연구 및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핵심 기술 설계

③ 실감형콘텐츠 (미래부, 문체부 등)

- 목표 : '20년까지 10개 강소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점유율 5% 선점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645억원)



- 실사기반 3D영상 기술 및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등 실감형 콘텐츠 융합 서비스기술 개발
 - ※ 저고도 근접영상 기반 관심지물/주요시설 3D 모델, 공간정보-실감콘텐츠 융합 모델링 기술개발
- 'SW+콘텐츠+디바이스'의 패키지형 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및 상암DMC에 문화·ICT 융합거점 조성
 - ※ 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VR영상플랫폼, 스크린X, 글로벌 유통 개발

④ 착용형스마트기기 (미래부, 산업부)

- 목표 : '20년까지 창의·감성 디바이스 글로벌 시장선점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207억원)



-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강화, 타분야 융합·연계 기술개발, K-ICT 디바이스랩을 통한 사업화 지원

※ 퍼스널트레이닝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 연동형 멀티 디바이스 및 플랫폼 개발

- 글로벌 스타기업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고도화 및 선제적인 인증·표준화를 추진

⑤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부, 국토부 등)

- 목표 : '20년까지 IoT 국내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768억원)



- 가전, 보건, 자동차, 에너지 등 분야별 실증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사물인터넷 활용 확산 촉진

※ '15년 헬스케어 실증단지(대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부산) 조성을 기추진

- D.I.Y. 개발환경을 확대하고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유망한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발굴 추진

⑥ 지능형 반도체 (미래부, 산업부)

- 목표 : '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2위(10%) 달성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738억원)



- 설계 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시장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 컴퓨팅 반도체 기술개발도 지원

※ 고속 미래형 컴퓨팅 시스템 성능 측정 시스템, 초저전력/경량 SW-SoC 플랫폼 아키텍처 개발

⑦ 고기능 무인기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 목표 : 세계 3위권 무인기 글로벌 리더 도약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499억원)

- 감시·배송 등 유망분야 실증,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확충 착수, 3차원 정밀지도 시범 구축, 무인기 사업범위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속 지원

※ 무인기의 항공기 공역진입을 위한 충돌회피 기술개발,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등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착수



⑧ 지능형 로봇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등)

○ 목표 : '20년까지 국내 로봇생산시장 6조원 달성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743억원)

- 공장자동화·안전·노인복지 등 핵심 분야의 원천·상용화 기술 확보 및 보급 확산 촉진

※ 중소제조업의 로봇적용 확산, 공공분야 수요 연계를 통한 초기 적용실적 구축 등

- 서비스 로봇 분야의 실증 및 본격 활용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

※ 로봇산업클러스터 기업지원 인프라, 안전·건강 분야 로봇개발 실증인프라 등



⑨ 빅데이터 (미래부, 방통위 등)

○ 목표 : '20년까지 빅데이터 3대 강국 도약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243억원)

- 민간·국가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 고도화

※ 복합형 고속 스트림 빅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 확보

- 데이터 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선순환적 유통생태계 조성 촉진

※ KoDB(데이터스토어), SKT(Hub) 등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판매·유통하는 민간 데이터 브로커 활성화



10 융복합소재 (산업부, 미래부 등)

○ 목표 : '24년까지 미래소재 및 산업용 핵심소재 4대 강국 실현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866억원)

- 미래소재 연구 활성화, 추격형소재 원천기술 확보, 소재 설계 및 양산 기술개발

※ 미래소재 사업단 구성, 계산과학 플랫폼 기술 개발, 나노입자설계 분석기법 확립, 첨단산업용 전략 소재·부품 운영기술 기반구축, 하이퍼플라스틱 원천기술 확보 등

- 미래소재 원천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등록 관련 제도 개선, 기업 맞춤형 융복합소재 고급인력 양성, 범부처 미래소재 사업화 애로 극복 협의회 구성



11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산업부, 해수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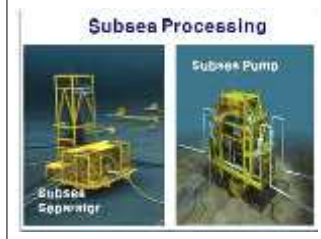
○ 목표 : '20년까지 국산화율 50%,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505억원)

- 심해저 원유·가스 생산처리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해양플랜트 연구인프라, 건조단계 규정완화, 기술상용화 지원제도 확충 등 지원

※ 심해공학수조, 고정밀도 운용시스템, 해양플랜트 인프라DB, 소재·부품·기자재 검증 시설



12 가상훈련시스템 (산업부)

○ 목표 : '21년까지 20개 스타기업 및 매출 100억불 달성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66억원)

- 핵심요소기술 개발 및 통합개발환경 구축을 통한 가상훈련 공통 플랫폼의 기반 마련

※ 마켓플레이스 개발, 마켓플레이스 연동기반 코어엔진 개발, 몰입형 요소기술 개발 등

- 종합육성계획 수립 등 관련산업 육성 및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제도 지원

※ 가상훈련 수요 및 시장 분야 발굴, 생태계 현황 분석, 공공훈련 법제화 등



13 맞춤형 웰니스케어 (미래부, 산업부 등)

- 목표 : '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 세계 5위권 진입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583억원)

- 병원-기업이 연계한 웰니스 IT 프로그램·플랫폼 개발 지원 및 거점 대학 지정을 통한 웰니스 기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프리미엄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안), 산·학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웰니스기기의 국제표준 획득을 지원하고 시험·인증 방안 및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PHR 수출 지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등



14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산업부)

- 목표 : '20년까지 바이오생산시스템 중견기업 10개 육성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384억원)

- 국내 바이오생산장비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제품개발을 지원
 - ※ 일회용 세포배양시스템,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무인자동화 세포배양 시스템 등
-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 GMP 전문인력 양성, '(가칭)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설립 추진 등



15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산업부, 미래부 등)

- 목표 : '24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10% 점유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878억원)

-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2.0 모듈 통합 최적화 기술개발

※ NRE-H 2.0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개발, NRE-H 시스템 Active Combination 기술 개발 등

-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도심형 충전시스템 실증

※ On-site 충전소 개념을 도입하여 전기, 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검증



16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안전처, 국토부 등)

○ 목표 : 현장 맞춤·통합 재난안전기술 구현을 통한 Safe Korea 실현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598억원)

- Post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적용

※ 재난상황 모니터링 기술, 재난현장 정보 분석 기술, 강우예측기술 등

-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재난 프로파일러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3개) 및 재난상황관리 오픈플랫폼 운영시스템 구축



17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배전 시스템 (산업부)

○ 목표 : '20년까지 직류기반 전력산업 글로벌 시장 7%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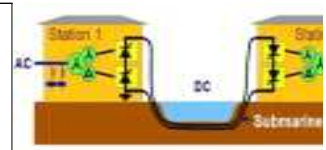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157억원)

- 선도국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ICT기반 기술을 활용한 핵심 기술개발 추진

※ DC±200kV, 200MW급 전압형 MMC 시스템 개발 및 MVDC급 직류배전 시스템 기초연구

-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실증 사이트 구축 추진

※ 80kV HVDC 실증 사이트 및 MVDC급 직류배전시스템 실증 사이트 설계



18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산업부)

○ 목표 : '22년까지 세계 2위권의 기술경쟁력 확보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124억원)

-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고부가가치 요소 기술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 초임계 유체 터보기기를 위한 자기베어링 기술 개발 등

- 해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실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19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산업부)

○ 목표 : '20년 첨단소재 가공분야 4대강국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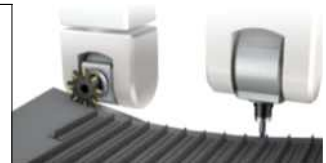
○ '16년 중점 추진방향(예산 199억원)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첨단공구 핵심기술 개발 착수

※ 탄소섬유복합재 및 난삭성 메탈, 사파이어글래스 가공시스템, 내열합금 가공용 문체 및 박막제도기술 개발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 절삭공구 기술지원 센터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 첨단소재 로봇가공시스템 및 워터젯 가공시스템 구축



□ 일시 /장소 : '16.3.30(수) 16:00~17:30 / 양재 스포타임(엘타워 옆) 5층(오렌지홀)

□ 참석자 (총 50여명)

- 위원장 : 손 욱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센터장
-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20명), 관계부처 담당자 등

□ 상정안건

- (심의)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 ※ (별도보고) 미래성장동력 관련 업종·품목 분류(안)

□ 진행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6:05~16:20 (15분)	▪ 안건 발표 - (심의)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 (별도보고) 미래성장동력 관련 업종·품목 분류(안)	미래부 산업연구원
16:20~17:25 (65분)	▪ 토론 및 질문·답변	
17:25~17:30 (5분)	▪ 폐 회	위원장

문체부, 첫 ‘지자체 맞춤형 도서관 컨설팅’ 결과 발표

- 4월 5일, 천안시 대상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처음 천안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도서관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최종보고회를 4월 5일(화) 천안시청에서 개최한다.

이 컨설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도서관정책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실시한 전년도 도서관운영 평가 결과의 부진 영역에 대한 개선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1월, 공공도서관이 2곳 이상인 137개 기초지자체 중 부진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11개 시·군·구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후 컨설팅의 적합성과 실효성, 지자체의 개선 의지 등을 반영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천안시를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7.75%(636.07km²)를 차지하는 천안시는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등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개 읍과 8개 면, 18개 행정동, 30개 법정동의 지역주민 605,776명(‘15년 12월)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는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팀장 김홍렬 전주대 교수)을 꾸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시 도서관을 방문하여, 지리적 입지 조건과 이용 현황 등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 경영과 인적 자원, 시설 및 환경, 정보 자원, 도서관 서비스 등 5개 영역별 부진 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충청남도 도의원과 천안시장, 천안시의회 의원 등 도서관정책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있는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컨설팅팀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측면과 단위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 방안과 천안시 공공 도서관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정책 결정자 및 도서관 운영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컨설팅 결과가 실제 지자체 도서관 운영과 평가에 적극 반영되고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내년에는 기초지자체 2곳을 선정하여 ‘지자체 맞춤형 도서관 컨설팅’ 효과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방 소재 기업까지 추진 전략 모색한다

- 문체부·무역협회, 4. 6.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다시 부각되고 있는 한류 열풍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무역협회)와 함께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개최한다. 그 첫 번째 설명회는 4월 6일(수) 오후 2시,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간접광고(PPL) 사례를 설명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최근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하고, 동시 방영 중인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누적 조회 수 15억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새로운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드라마의 성공은 판권 판매를 통한 직접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간접광고·가상광고 등을 통해 일반 수출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드라마 방영 후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동차 ‘투싼’의 하루 평균 계약률이 이전보다 10% 상승하는 등, 드라마로 인해 얻은 광고효과를 약 1,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막강하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4년의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와 소비재, 관광 수출액 추정치는 61억 6000만 달러(약 7조 5000억 원)다.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증가율인 2.3%를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한류와 수출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부·방통위·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콘진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 공공기관, 방송3사 등과 함께 일반기업들이 한류를 타고 해외로 동반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진출 방식과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수도권 소재 기업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출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로 확대해 개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에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밑바탕이 되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설명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수출기업 대상으로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사례(광고 연계 해외배급, 해외용 PPL 등) 및 기관별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방송영상기업-일반기업 동반진출 제고
 - 일시: '16. 4. 6.(수) 14:00~17:00
 - 장소: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연수실
 - 참석: 인천 지역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
 - 주최: 문체부, 한국무역협회
- ※ 무역협회 지역본부별 회원사의 날(Member's day)행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참여도 제고

□ 행사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5:00 (60')	· 중소기업의 브랜드마케팅 전략	한성철 (로이컨설팅 소장)
15:00~15:05 (5')	· 휴식시간	
15:05~16:05 (60')	· SNS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성공사례 및 전략	권정민 (오소 대표)
16:05~16:10 (5')	· 휴식시간	
16:10~16:15 (5')	· 광고 연계 해외배급 추진 사례 및 관계기관 지원사업 등 소개	최재환 사무관 (문체부)
16:15~16:45 (30')	· PPL 개념 및 해외 진출사례	김동수 (PPL& 컴퍼니 대표)
16:45~17:00 (15')	· PPL 지원사업 소개	무역협회
17:00~17:10 (10')	· 질의 응답	

□ 향후 계획

- 대전, 경기 등 소비재 중소기업 등 다수 입주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 (분기 1회)

농식품부,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총 92억원 규모)

- Fake-meat, 스마트 테이블웨어, 천연염미소재,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등 지정공모 35개 과제 63억원 규모 -
- 산업체의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유응모과제 29억원 규모

《 주 요 내 용 》

- ◆ Fake-meat, 스마트 테이블웨어, HMR 살균공정 개발, 블록형 K-소스 개발, 식품 3D프린팅, 천연염미소재,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개발 등 식품산업의 미래 대비 연구개발 과제 공모
 - 공고/접수기간 : 2016. 4. 6.(수)~5.6.(금) / 4.22.(금)~5.6.(금)
 - 공고규모 : (지정공모) 35개 과제 63억원 이내, (자유응모) 29억원 이내
 - 접수처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R&D 연구마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3억 규모의 201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와 29억원 규모의 자유응모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공모과제는 총 35개 과제(63억원 규모)에 대해 진행되며, 식품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기획하였다.

○ 자유응모과제는 산업체의 기술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식품분야

연구에 대한 주제·품목 등을 연구자의 재량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29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식품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59건의 기술이 접수되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조사 검토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검토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이 필요한 35개 주제를 선정,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도출하였다.

□ 특히, 올해에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웨어 개발, Fake-meat, HMR 살균공정 개발, 블록형 K-소스 개발, 식품 3D프린팅, 천연염미소재, 김치 유통기한연장 기술개발 등의 과제를 기획하였다.

○ 스마트 테이블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숟가락, 젓가락, 컵 등 식사 기본도구로 온도, 식품 오염, 칼로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개발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과제이며,

○ Fake-meat 과제는 현재 판매되는 콩고기 제품의 물성을 끌어올려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가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고수분식품 등 다양해진 HMR 식품에 최적화된 살균공정을 개발하고 산업화 하는 HMR 안심 프로젝트 과제도 기획하였다.

○ 이외에도, 소스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름·블록·큐브·과립·분말 등 신개념 소스 제형 개발, 식품용 3D 제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듈화 기술 개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천연 염미소재 대량생산 기술 개발, 수출용 김치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등 다양한 과제가 기획되었으며,

○ 중소기업이 소재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하고, 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하는 기업 간 상생형 연구과제도 기획되었다.

□ 또한, 기존에는 자유응모과제에 대해서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필수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금년부터는 지정공모과제를 포함한 전체 과제에 대해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를 강조하였다.

○ 이에 더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분야 R&D를 통해 식품산업이 미래 시장을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금번 식품 R&D사업의 연구성과가 사업화·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연구기관-식품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금번 공고 과제의 최종선정은 R&D사업 관리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통해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 과제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위 평가원 홈페이지의 'R&D 연구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수산물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또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정 : 공고(4.6) → 접수(4.22~5.6) → 선정·평가(5~6월) → 협약체결(6월~)

* 온라인 접수처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내 R&D연구마당 <http://rnd.ipet.re.kr/ipetUsr/index.jsp>

내역사업	연구과제명	예산	연구
		('16년)	기간
식품산업 기반기술확보	1.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주방용 스마트 테이블웨어 개발 프로젝트	2.4	2.6
	2. 가정 편의대체 식품 신(新)살균공정 개발 및 산업화 (HMR안심프로젝트)	1.8	2.6
	3. 식물성 더(고기같은)고기 개발 프로젝트	2.1	1.6
	4. 소비자 맞춤형 식품 3D-프린팅 기술 및 제품개발	1.8	2.6
	5. 저등급·저지방 식육의 부가가치 증진프로젝트	1.2	2.6
	6. 미래형 수분조절·복원 기술 개발을 통한 프리미엄 냉동식개발	1.8	2.6
	7. 식육제품의 비열살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육제품안심프로젝트)	1.8	2.6
	8. 식품공정, 기기 위생을 위한 천연항균 복합조성물 및 활용기기개발	1.8	2.6
	9. 최소 가공 기술을 이용한 유효성분 극대화공정 및 세대 맞춤형 식품개발	1.8	2.6
9 과제		16.5 억	('16년)
식품소재 연관산업육성	10. 특수가공기술을 활용한 농산 자원 가공 제한성 극복 프로젝트	1.2	2.6
	11. 아웃도어용 고기능 발열제 및 식품 포장기술 개발 (혁신형 패키지 개발 프로젝트)	1.8	2.6
	12. 생물전환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다당체 유래 올리고머 산업화	1.8	2.6
	13. 국내 자생 소재를 이용한 시장 지향형 식품 향미 소재 개발 및 산업화	1.8	2.6
	14. 고가의 신선 농식품 택배 배송을 위한 고효율 보냉 용기 개발	1.8	2.6
	15. 곤충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식품소재 개발 및 상품화	1.8	2.6
	16. 물성개선 식품제조를 위한 저가·소형 초고압 기기개발	1.8	2.6
	17. 전 국민 혈관 노화방지 프로젝트	1.8	2.6
	18. 건강나이 -3.4세 프로젝트	1.8	2.6
	19. 액상 식품 충전용 정밀센서개발 및 산업화	1.8	2.6
	20. 가공육에 사용되는 유해발색제, 보존제 대체 소재개발 및 산업화	2.1	1.6
	21. 농·축 부산물을 활용한 산업용 염미소재개발 및 산업화	2.1	1.6
12 과제		21.6 억	('16년)
미래전략 식품육성	22. 고령자용 저작용이, 저작기능 개선 식품개발	2.4	2.6
	23. 새로운 특수 의료용도 식품유형군 개발 및 산업화	1.8	2.6
	2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산균 저장제 개발 및 산업화	1.8	2.6
	25. 생리전 증후군 완화식품 개발을 통한 여성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	1.8	2.6
	26. 어린이용 고영양 식사대용식 개발 및 산업화	1.8	2.6
	27.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영양·미용 증진 프로젝트(모자 건강 증진 프로젝트)	1.8	2.6
6 과제		11.4 억	('16년)
글로벌 K-프로젝트	28. 경제성·흡수율이 증진된 뼈 건강 소재 및 제품개발 (국민 뼈건강증진프로젝트)	1.8	2.6
	29. 신개념 제형개발을 통한 K-소스 상품 시장 확대 (K-소스 특수제형 개발프로젝트)	1.8	2.6
	30. 쌀가루 품질 지표 개선을 통한 글로벌 스타 제품 개발	1.8	2.6
	31. 현장 식품 안전을 위한 휴대형 분석기 개발 및 상용화	1.8	2.6
	32. 김치 유통기한 연장을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1.4	1.6
	33. 중동시장 개척용 한식 할랄 조미 소재·제품개발	1.4	1.6
	34. 남미인 기호를 반영한 수출용 K-food 제품개발 및 산업화	1.8	2.6
	35. 전통 식품의 식미개선 통한 스타 디저트 상품개발 (K-디저트개발프로젝트)	1.4	1.6
8 과제		13.2억	('16년)
계 251.7 억	총 35 개 과제 (35개 팀 선정)	62.7 억	('16년)

이동필 장관, 강원도 청년 스마트 팜 선도농가 방문!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5일(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청년 스마트 팜 농가(이00, 37세, 귀농 3년차)를 방문하여,
 - 젊은 나이에 귀농하여 첨단농업으로 높은 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는 모습을 격려할 예정이다.
- 이 대표가 속해 있는 오대 영농조합법인(파프리카 수출단지)에는 30대의 젊은 귀농인과 후계농들이 힘을 모아 스마트 팜을 통해 파프리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농식품부에서는 4월 중에 이 농가처럼 농가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스마트 팜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에 있어 남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도모델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이들 선도농가를 벤치마킹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개 요

- 목 적 : 스마트 팜 선도모델 현장 방문
- 일 시 : 2015. 4. 5.(화) 14:00~15:00
- 장 소 : 오대영농조합법인(평창 파프리카) 이00(37세) 농가
* 주소 : 강원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218
- 참석자 : 영농조합법인 스마트 팜 농가, 강원도 및 평창군 관계자

□ 농가현황

- 파프리카 14연동 비닐온실(8,250m²), 연간 생산량 120톤
- 도입내용 : 내·외부 온실 환경센싱, 천·측장 제어 등 구동기 제어, 모니터링 및 양액제어
- 도입비용 : '15년 90백만원(국비 18백만원, 지방비 36, 자부담 36)
- 귀농 후 농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온실을 구축하고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주변 젊은 농가들과 노하우를 공유

□ 세부일정

일 시	시간	세부 일정	비 고
12:30~14:00	90'	○ 이동(원주→평창 스마트팜 농가)	
14:00~14:30	30'	○ 온실현장 시찰	이00 대표
14:30~15:00	30'	○ 스마트 팜 농가 환담 * 주변 파프리카 재배농가 등	
15:00~18:00	180'	○ 이동(평창 → 서울)	

환경부, 현장 · 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 ◇ 현장을 찾아가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들어보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개최
- ◇ ‘환경규제 역지사지’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체험
- ◇ ‘개선규제 사후관리’로 개선규제의 현장적용성을 강화, 행정집행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유도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①현장과의 소통강화 ②현장적용성 강화 ③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 먼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 ※ 붙임2 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 참조
 -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체험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여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 아울러, 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직장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규제개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현장의 국민간의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규제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 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2016년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 아울러,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 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 경제단체·국조실 등과 협업T/F를 구성, 국내·외사례 분석, 현장확인 후 일제히 정비(1~3월 안건발굴, 상반기 릴레이간담회·내부검토(현장확인 포함),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 그러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과학적 환경규제 ▲똑똑한 (스마트) 환경규제 ▲소통형 환경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또한,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집행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 붙임 1.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2. 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I. '16년 환경규제 개혁 추진개요

목 표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

3대 원칙

- ◆ 국민·기업 불편 야기하는 형식적·절차적 규제 개선
- ◆ 규제자 편의에 따른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 ◆ 과학적 규제, 스마트 규제로 환경규제 선진화

3개 분야 10대 실행 계획

① 현장과의 소통 강화

- ❖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 ❖ 환경규제 역지사지
- ❖ 환경규제 사전 점검표 적용

② 현장적용성 강화

- ❖ 개선규제 사후관리(AS)
- ❖ 사전컨설팅 감사제
- ❖ 규제개혁 인식전환 추진

③ 규제 관리 체계 정비

- ❖ 환경규제비용 증가 최소화
- ❖ 일몰규제 정비
- ❖ 규제개혁실적 성과평가
- ❖ 규제개선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Ⅱ. 과제별 추진계획

1

현장과의 소통 강화

1-1.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 환경규제 상시 소통창구 ‘환경규제 두드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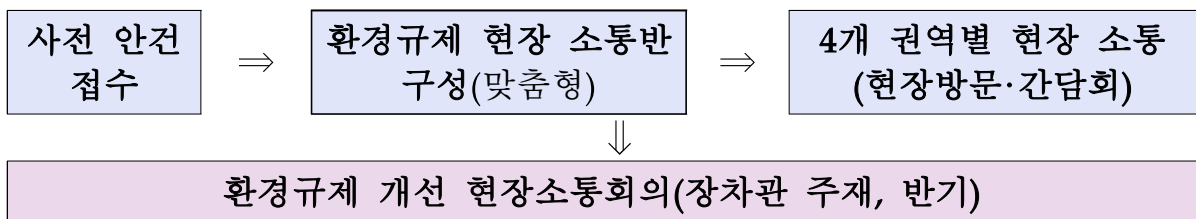
* 지역별(유역·지방청 7개소), 분야별(보전협회, 폐기물관리협회 등 4개소), 단체별(경총, 전경련, 중기연 3개소)로 구성, 유선전화·전자우편 등 활용 건의과제 접수

□ ‘환경규제 현장소통반*’ 구성

* 법무담당관(반장), 안건별 환경부·지방청 담당자, 업계·전문가 등 안건별 맞춤형 구성

□ 4대 권역별(충청·호남·영남·수도권) 현장방문 및 간담회

○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장·차관 주제, 반기)에서 핵심과제 애로해소



1-2. 환경규제 역지사지

□ 정책입안자(환경부 과장급)가 피규제자 입장에서 인·허가 등 규제 직접 체험(4월~5월), 개선과제 발굴(6월) 및 개선

○ 과제별 이행 정도 및 체험의 성실성, 구체성, 개선과제 발굴의 적합성, 난이도 등을 평가



1-3. 환경규제 사전 점검표 적용

- ☐ 규제 입안 단계에서 현장적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 '규제 현장적용성 제고 체크리스트'를 개발(4월), 자체 규제 심사 전 제출토록 의무화(4월~)

〈규제 현장적용성 제고 체크리스트 예〉

- ✓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청취했는가?
- ✓ 집행기관의 의견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청취했는가?
- ✓ 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점검은 했는가?
- ✓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있는가?

2

현장적용성 강화

2-1. 개선규제 사후관리(AS)

- ☐ 기 개선과제에 대해 면담,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미흡과제 추가개선 등 개선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4월~, 주관: 법무담당)
- 기 개선과제 중 현장체감도가 낮은 과제를 선정한 후 유선 및 현장 설문조사 실시
- 만족도 미흡과제*는 사업국과 협의하여 수요자 맞춤형 2차 규제 개선을 실시하는 등 개선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 * 홍보부족, 지자체 미이행,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개선 등
- 만족도가 높은 사업국, 부서 및 담당자에 포상 실시('16년말)

2-2. 사전컨설팅 감사제

- ☐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을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케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 실시

- 불명확한 규정, 법령과 현실간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인·허가, 협의 등)가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 감사대상 과제 발굴을 위한 소속기관 순회설명회(4월), 법정협의 등 수요조사(7~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2-3. 규제개혁 인식전환 추진

- **全 직원 대상 사이버·직장·집합 교육과정을 개설·실시하여 규제개혁 인식전환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간극 최소화 추진**

- ▶ **(사이버교육)** 전직원 대상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러닝(e-learning)센터에서 실시하는 규제개선 교육(12차시/6시간)을 상시학습 중 필수교육에 포함
- ▶ **(직장교육)** 환경부 전직원(규제엘리트, 실·국별 주요규제 담당자(필수)) 대상으로 규제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 실시(분기)
 - * 규제 소극행태, 현장체감 불합리 규제,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등
- ▶ **(집합교육)** 규제현장 탐방·체험,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역할 변경 토론회, 현정부의 규제정책 설명 등을 주제로 환경인력개발원 교육 개설(5월)
 - ※ 규제교육 이수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이수목표 설정관리

3

이행과제 관리체계 정비

3-1. 환경규제비용 증가 최소화

- **규제비용총량제 대상 규제의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환경규제 순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관리**
 - ※ 적용 제외: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규제, 국민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행정질서벌 및 규제비용 연 10억 미만 규제

-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환경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총량을 관리

3-2. 일몰규제 정비

- 일몰도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개선, 규제정비위원회 구성하여 위원회 통과 규제에 한하여 원안유지

*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고 기한도래 시 규제의 존속 및 개선·폐지 등을 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

3-3. 규제개혁실적 성과평가

-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지수화, '16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관리

3-4. 규제개선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 규제개선 과제를 내실있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 규제개선 이행현황에 대해 장관 주재 주기적 이행 점검

붙임 2**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환경규제 두드림)**

☐ 개인별(총괄) 소통 창구

연번	접수처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6	youditi@korea.kr

☐ 권역별 소통 창구(환경청)

연번	접수처	지역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031-790-2861	junechoi98@korea.kr
2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055-211-1613	kimunjae11@korea.kr
3	금강유역환경청	충청	042-865-0734	jieun14@korea.kr
4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	062-410-5212	hyeonju07@korea.kr
5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033-760-6021	indez22@gmail.com
6	대구지방환경청	경북	053-230-6428	juhye1109@korea.kr
7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063-270-1823	youngchoi@korea.kr

☐ 분야별 소통 창구(유관기관)

연번	접수처	분야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환경보전협회	정책일반	02-3407-1559	jmin@epa.or.kr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보건정책	02-3019-6703	sin926@kcma.or.kr
3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기후대기	031-382-2608	kim009kim@naver.com
4	한국폐기물협회	자원순환	02-2680-7020	kwaste@kwaste.or.kr

☐ 경제단체별 소통 창구(경제단체)

연번	접수처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전국경제인연합회	02-3771-0274	sms@fki.or.kr
2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66	kimhh@kef.or.kr
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1957	boyoung.baek@ahpek.or.kr

1. 환경부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했는데 별도로 건의를 해야 하는지?

-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접수되는 안전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규제도 대상으로 합니다.

2. 단체·협회 등 소속이 아닌 개인이 안전을 접수하려면?

- 단체·협회, 지방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6396, 팩스 : 044-201-5532)에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3.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 환경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지?

- 유사·중복절차, 과도한 자료보고 요구 등 형식적 행정절차, 사후 규제가 가능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사전규제, 규제 필요성은 있으나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 **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사전컨설팅 감사제** :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업무 등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사전협의 후 업무처리를 하면 결과에 대하여 감사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 **규제비용총량제** : 규제의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 **일몰규제** :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되기 전 규제 존속 및 개선·폐지를 검토하거나(재검토행 일몰), 기한 도래 후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효력상신행 일몰) 제도

능력중심사회와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숙련기술인의 축제

201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막!

- 전국 17개 시도별 모바일로보틱스, 그래픽디자인 등 49개 직종 7,593명 선수 참가
- 드론 인명구조 및 솔라카 제작 등 30개 직종 특성화 경기,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55개 체험행사 진행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회 추진

- 전국 17개 시·도에서 주최하는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박영범)의 후원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103개 경기장에서 7,593명이 참가하여 일제히 막을 올린다.
-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예비숙련기술인들의 등용문인 지방기능경기대회는 모바일로보틱스, 그래픽디자인 등 49개 직종 경기대회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열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 이처럼 Two Track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정식직종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49개 직종별로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되며,
 - 침선공예(대구, 울산), 김치담그기(광주), 흑돼지 돈육가공(제주) 등 30개 지역특성화 기능경기도 동시에 열려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특히, 지방기능경기대회 경기장에서는 케이크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관람객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 한편 공단은 2007년부터 기업체, 은행 등 32개 기관과 기능장려협약

을 체결, 현재까지 기능경기대회 출신자 1,368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최근 **능력중심채용**과 관련하여 스펙이나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은 기능경기대회 출신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화학, 포스코 등의 기업은 지난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9명을 채용하였다.

□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기능경기대회는 스펙이나 학벌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능력중심사회의 초석이 될 숙련기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지방대회 입상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 수여 및 상금이 지급되며,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전화(1644-8000) 혹은 각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skill.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요

2.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경연대회 현황

[첨부 1]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요

【개최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 대회기간 : '16. 4. 6(수) ~ 4. 11(월) [6일간]

□ 개최 및 주관

- 개최 : 17개 시·도
- 주관 : 17개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 후원 : 고용노동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 대회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4. 6 (수) (1일차)	09:00 ~ 13:00 10:00 ~ 11:00 13:00 ~ 14:00 14:00 ~ 18:00	○ 심사(장)위원 경기준비 ○ 개 회 식 ○ 선수 경기준비 ○ 경기개시 (제1일)
4. 7 (목) (2일차)	09:00 ~ 18:00 11:00 ~ 12:00	○ 경 기 (제2일) ○ 경기참관 (자체결정)
4. 8 (금) (3일차)	09:00 ~ 18:00	○ 경 기 (제3일)
4. 9 (토) (4일차)	09:00 - 12:00 14:00 - 18:00	○ 경기 완료 ○ 심사 채점
4. 10 (일) (5일차)	09:00 - 12:00 13:00 - 18:00	○ 심사채점 완료 ○ 입상자 발표, 시상식준비
4. 11 (월) (6일차)	09:00 - 14:00	○ 시상식 (폐회식)

* 시·도 위원회의 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단, 경기일자별 과제 개봉 일시는 변경할 수 없음

□ 개최직종 및 인원 : 정보기술 등 49직종 7,593명

□ 경기장 :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103개 기관

□ 경연대회 : 드론 인명구조 및 솔라카제작 등 46직종 1,126명

- 특성화대회 : 드론 인명구조 및 솔라카제작 등 30직종 715명
- YoungSkill 올림피아드 : 과학상자 모형제작 등 16직종 411명
- 문화 및 체험행사 : 메이크업 네일 체험 등 55행사

[첨부 2]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경연대회 현황

□ 직종 및 참가인원 : 솔라카 만들기 등 30직종 715명(영스킬 올림피아드 포함)

시·도	개최 직종	대회일정	인원	장 소	작업 내용
합계	30직종		1,126		
서울	드론인명구조 및 솔라카제작	4.7(목)~4.8(금)	30	서울공고	드론 제작을 통한 기술이해와 드론 활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해 솔라카 모형제작
	동영상UCC제작	4.7(목)~4.8(금)	20	서울공고	세계저작권조약에 대한 취지 이해와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의 홍보
	<영스킬> 과학상자 모형제작	4.6(수)	40	서울공고	과학상자를 이용한 창의적인 모형만들기
부산	동영상 촬영	4.7(목)~4.8(금)	18	부산기계공고	대회스케치를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촬영한 기술 평가
	조각보 공예	4.9(목)~4.10(금)	20	부산기계공고	조각천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
	<영스킬> 네일아트	4.7(목)	20	부산기계공고	제한시간내에 기초적인 미적 화장능력 평가
대구	침선공예	4.6(수)~4.7(목)	10	경북기계공고	섬유를 이용한 전통공예 기술의 응용과 활용능력 평가
	천연염색	4.6(수)~4.7(목)	10	경북기계공고	전통적인 염색기법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 만들기
	<영스킬> 로봇과학 경진	4.9(토)	24	경북기계공고	참가자가 스스로 로봇을 설계, 제작하여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
인천	외국인근로자 지게차 운전	4.9(토)	20	인천항만연수원	생산현장이나 물류창고, 부두 등에서 경화물을 적재, 하역 및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 운전
	외국인근로자 굴삭기 운전	4.9(토)	15	인천항만연수원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착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굴삭기 운전
	<영스킬> 로봇댄스	4.7(목)	30	인천기계공고	사전제작한 로봇으로 각종 동작 및 음악에 맞춘 댄스 경연
광주	김치담그기	4.7(목)	15	광주자연과학고	각종 양념을 적정하게 배합하여 김치담그기
	천연염색디자인	4.7(목)	15	광주공고	주어진 천연염료와 스카프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염색 디자인 작품을 제작
	<영스킬> 요리(한·양식)	4.8(금)	15	광주자연과학고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한식 및 양식을 조리
대전	자수	4.7(목)	15	충남기계공고	제시된 도안을 이용하여 손자수 작품 제출
	캐릭터그리기	4.7(목)	15	충남기계공고	대전광역시 캐릭터를 변형하여 대전 이미지를 상징하는 캐릭터 작품 제출
	<영스킬> 쿠키만들기	4.9(토)	20	대전지역본부	쿠키를 직접 반죽하고 장식 후 오븐을 이용하여 완성
울산	침선공예	4.7(목)	20	울산공고	천연색 원단을 사용하여 한복과 이불, 보자기, 주머니 등 제작
	언양봉계한우요리	4.7(목)	20	울산공고	울산지역의 특화된 한우요리 경연
	<영스킬> 로봇배틀대회	4.7(목)	20	울산공고	주어진 로봇킷트를 조립하고 완성도 및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
경기	지능형로봇	4.6(수)~4.8(금)	16	김포제일공고	경기도의 우수한 첨단 기능을 소개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홍보

시·도	개최 직종	대회일정	인원	장 소	작업 내용
	영상제작	4.6(수)~4.8(금)	28	김포제일공고	경기장면 및 경기장 촬영하여 기능경기대회 홍보 및 활성화
	<영스킬> 복싱로봇	4.6(수)	30	김포제일공고	제작해 온 로봇간의 복싱 대결
강원	모바일로봇만들기	4.9(금)	30	원주공고	모바일 로봇의 이해와 로봇 만들기
	<영스킬> 케익데코레이션	4.9(토)	30	영서고	케익빵을 이용한 케익데코레이션
충북	기능경기캐릭터 그리기	4.7(목)	16	청주공고	기능경기 직종을 대상으로 그리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4.8(금)	20	청주공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계, 시공, 설치, 완성 검사를 직접 하고 운전하는 작업
	<영스킬> 케익만들기	4.9(토)	20	충북지사	케익용 빵을 반죽하고 오븐을 이용 완성
충남	병천순대만들기	4.7(목)	5	천안공고	천안지역 특성화 식품인 병천순대로 지역주민 참여유도
	외국인기능경기 (용접)	4.7(목)	7	천안공고	고용허가제 입국근로자들에게 한국의 숙련 기술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 함양
	<영스킬>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대회	4.9(토)	7	병천고	학생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 경연대회
전북	한지공예	4.7(목)	10	전주공고	틀을 만들고, 한지를 붙이고 문양을 조각하여 공예품 제작
	부채만들기	4.7(목)	10	전주공고	전통 기법으로 대나무 살을 만들고 종이와 천으로 문양을 만들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
	<영스킬> 과학꿈나무 로봇제작	4.7(목)	50	전주공고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로봇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Mission)들을 수행
전남	돌산갯김치 담그기	4.7(목)	20	순천청암고	돌산 갯 특유의 맛과 모양을 살려 갯김치와 갯물김치를 만들기
	<영스킬> 데커레이션 케익 만들기	4.9(토)	30	청암대학교	제과·제빵 재료와 기구 등을 사용하여 성형, 장식 등을 거쳐 장식 케이크를 만드는 직종
경북	IT융합컨텐츠	4.7(목)~4.8(금)	25	금오공고	기본 프로그램(엑셀, 워드 등)에 대한 동기 부여
	로봇격투기	4.7(목)~4.8(금)	30	금오공고	원판위의 로봇이 서로 격투를 벌이며 원판 밖으로 밀어내는 경기
	<영스킬> NXT 지능로봇 경기	4.7(목)~4.8(금)	30	금오공고	출발전 로봇에게 임의의 칼라브릭을 얹고 이동 중 바닥에 칼라별 보판 장소에 브릭을 떨어뜨리도록 임무 수행·완주
경남	외국인근로자 용접기능경기대회	4.10(일)	15	한국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용접, 압접, 납땜을 수행
	한국식음료경연 대회	4.9(토)~4.10(일)	200	경남지사 강당	전통주, 와인 등 분야에서 맛, 서비스를 평가
	<영스킬> 과학재능 경연	4.10(일)	20	경남지사 강당	각종기계부품을 모방한 여러 가지 부품을 활용하여 스스로 작품을 설계하고, 단순한 구조물로 부터 동력을 이용한 기계장치 구조조립
제주	제주흑돼지 돈육가공	4.9(토)	20	제주양돈농협 수출육가공공장	제주 흑돼지 부위별 가공기술 경연
	<영스킬> 굴삭기 모형 조립 경연대회	4.7(목)	25	한국폴리텍1 대학 제주캠퍼스	교과과정에서 배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굴삭기로 물건을 옮기는 경기
세종	가채공예	4.7(목)	20	세종하이텍고	한국 전통머리 모양 중 어유티와 거두미를 전통방식으로 재현

청소년활동안전센터 1년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배 이상 증가

- 2015년도 청소년활동 현장점검 1,018건, 전년 대비 212% 증가 -
-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22회 1,000명 대상, 전년 대비 240% 증가 -
- 4.8(금)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하는 안전다짐마당’ 개최 -

- ☐ 청소년활동 안전을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출범한 이래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청소년활동안전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4월 8일(금)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안전센터가 2015년도 종합안전점검 대상 시설 398개소 전부 점검(395개소, 99.2% 적합)하고, 수련활동 신고·인증을 거쳐 안전을 확인한 활동프로그램 7천407건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 안전점검을 마친 활동프로그램이 전년 대비 136%(1천942건 ↑) 증가했으며, 활동 현장점검은 1천108건으로 전년 대비 212%(538건 ↑) 증가해 실시됐다.
- 시설 및 활동 유형별로 세분화한 안전교육은 총 22회, 1,000명 대상으로 실시돼 전년 대비 240%(583명 ↑) 증가했다.
- 또한, 수련시설과 활동프로그램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개편해 수요자 편의와 정보 활용도를 높인 결과,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월 평균 12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138%(3만5천명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청소년활동 안전전문기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전담인력 29명을 신규 배치해 현장 점검, 안전관리 컨설팅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해 왔다.
- ☐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 문래청소년수

련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청소년활동, 안전을 입다!’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하는 안전 다짐 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강은희 장관과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소방협회 등 안전 관련 기관, 청소년기관 관계자와 청소년,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 안전센터 성과보고, ‘청소년활동 안전 컨설팅단’* 출범식, ‘안전알리미’** 발송 시연, 지난해 안전점검과 교육·안전 홍보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 청소년활동 안전 컨설팅단 : 청소년활동 안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동 현장의 시설과 분야별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집단
 - ** 안전알리미 : 청소년활동 운영과 관련한 안전정보(당일 기상, 생활정보, 유의사항 등)를 운영자 문자메시지(SMS)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안전센터가 운영하는 서비스
 - *** 수상자 : 청소년활동 안전지원협의체(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주)로이비주얼, 청소년활동안전 홍보단

□ 강은희 장관은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생생동행 장관실’의 일환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수련시설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도시농장체험을 청소년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 국가안전대진단 : 2.15~4.30까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중이용시설, 위험시설, 안전사각지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 예방활동

- 이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부 3.0 협업 가치에 기반해 안전센터가 주도하고 안전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구성된 ‘청소년활동 안전지원협의체’와 함께 진행하며, 지난 2015년 종합안전점검 시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컨설팅이 이뤄진다.

□ 강은희 장관은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밖 다양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환경과 체험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 “청소년활동 안전 문화가 현장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청소년활동 안전다짐 행사 개요

2.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요

붙임 1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하는 안전 다짐 마당」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청소년활동, 안전을 입다!'
 - * 국가안전대진단 계기 청소년시설 안전 점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안전체험·공연
- (일시) '16. 4. 8.(금) 10:00~12:00
- (장소)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 (주최) 여성가족부
-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
- (참석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 안전협의회, 청소년시설·단체 관계자 등 150명
-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출범 1주년 성과보고 및 안전 체험 행사

□ 행사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식전행사	10:00 ~ 10:40	• 수련시설 안전대진단(전기, 소방 등) • 안전사인물 부착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시농장체험) 참관
기념행사	10:40 ~ 11:10	• 청소년활동 안전 성과 보고(영상) • 환영사(진흥원 이사장) • 축사(여성가족부장관) • 컨설팅단 출범, 안전알리미 발송, 공로패 수여
식후행사	11:10 ~ 12:00	• 안전뮤지컬 - 김관장, 안전을 입다!

붙임 2

청소년 활동안전센터 개요

□ 설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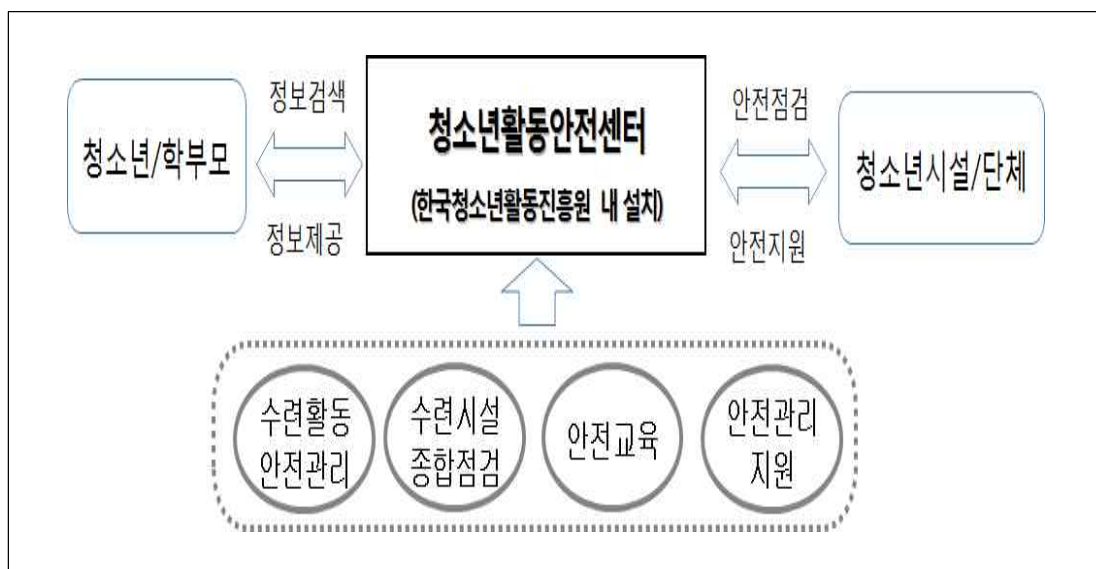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대응 및 법적 의무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 * 신고제 운영 지원 및 시스템 운영(제9조의2, 9조의4)
-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제18조, 제18조의2)
- * 인증위원회 등 인증제도의 운영(제36조)

□ 주요 기능

- 청소년 안전 전문 기관으로 수련활동 안전관리 총괄 기능 수행
 - (예방 및 교육) 신고·인증 컨설팅, 종사자 안전 교육, 매뉴얼 보급
 - (현장 점검) 시설 안전점검·관리, 활동 실시 현장 안전 확인
 - (대응 강화) 사고 확산 방지, 수습 등 상시 대응체계 가동

□ 운영체계 및 기능



1인 창조기업 찾아간다 ... '공간정보 융·복합' 전국 설명회 - 국토부, 6일~8일 '찾아가는 설명회' 통해 1인 창조기업 살리기에 나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1인 창조기업 지원 및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전국 각지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 지난달 17일 국토연구원(경기도)에서 개최한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설명회』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고, 참석이 여의치 않았던 지방 소재 1인 창조기업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각 지역 시·도 일자리 창업지원 부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학 등 약 40여 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 전라권(4월 6일, 조선대학교), 중부권(4월 7일, 충남대학교), 경상권(4월 8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다.
 -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및 새로운 가치 창조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는 최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위치 정보를 접목한 다양한 앱, 지도서비스, 분석서비스 등이 부각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블루오션인 공간정보산업에 고가의 기반 시설과 국가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까지 지원해 창조적 아이디어가 공간정보와 융·복합해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주게 된다.
- 이를 위해 전담 인력과 전문 컨설팅팀을 올해(2016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특히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환경과 개발과정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개발한 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무료로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간정보 전문 유통 플랫폼인 ‘공간정보 열린 장터(오픈마켓)’에서 마케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용화시키고 유통 및 홍보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분야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존의 공간정보 생산·관리 등에 머물던 산업을 영역을 공간정보융·복합 기반의 창조적 산업영역 전문야로 확대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 창업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설명회 개최계획

□ 설명회 개요

- (時/所) '16. 4. 6 ~ 8(3일간) / 권역별 대학교 대강당 등(중부·전라·경상권*)
* 전라권: 4. 6(수)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중부권: 4. 7(목)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경상권: 4. 8(금)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02호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공사
* 권역별 시도·지방중소기업청·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추진
- (참여) 창업준비생, 1인 창조 및 소기업 종사자 등 권역별 100여명

□ 행사내용

- (정책소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개방·공유·유통 정책설명
- (포털소개)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소개, 오픈마켓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민간서비스, 1인 창조기업·소기업 컨설팅 및 활용 지원 등
- (의견수렴) 질의·응답, 오픈마켓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행사계획

시 간		진 행 계 획	비 고
14:00~14:10	'10	① 개회	
14:10~14:30	'20	② 국가공간정보 개방·공유·유통 정책설명	
14:30~15:00	'30	③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운영 및 민간활용	
		④ 오픈마켓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⑤ 신규서비스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설명	
15:00~15:20	'20	⑥ 질의·응답	
15:20~15:30	'10	⑦ 마무리	

무인기(드론)로 대한민국을 다시 측량한다!

-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 실험사업’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이달부터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 이를 위해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 실험사업 지구 현황 》

- ① 주거+농경지+임야 혼합형 : 횡성군 우용지구, 아산시 대음지구, 함평군 월야지구
- ② 주거+농경지 혼합형 : 청주시 흥덕구 덕촌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 ③ 주거지형 : 청주시 상당구 영운지구
- ④ 도서지형 : 여수시 개도지구

-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
- (사업설명) 최신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와 경계결정 협의에 활용

○ (현지조사) 필지별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조사

○ (측량성과 검사)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 확인 등

□ 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 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무인기(드론)의 지적재조사 활용방안 마련 실험사업 추진 등

참고 1

무인기(드론)의 지적재조사 활용방안 마련 실험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

-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

* 지적공부 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

** 지적도(종이도면)상의 경계를 좌표값이 없이 선형(線形)으로 등록

*** 토지의 경계를 좌표값으로 등록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제정)

□ 지자체 등 활용현황

- (경기) 세계측지계 변환 결과와 무인기(드론) 촬영 영상과 비교·확인
- (충북) 지적불부합지 추출 및 검증과 사업 전·후 비교·확인
- (전남) 촬영한 영상으로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를 활용
- (LX 공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와 촬영 영상을 비교하여 담장·구조물 등 지형지물 측량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측량에 활용

《 지자체 등 무인기(드론) 도입현황 》

	고정익	회전익	'16년 도입예정
지자체	-	6대(강원 2, 전남 4)	4대(충북 2, 충남 2)
LX공사	1대	13대	-

□ 실험사업지구 현황

시도	시군구	지구명 (사업년도)	지구유형	불부합지 유 형	필지수	추진 단계	비고
강원	횡성군	우용지구 (‘16년)	주거, 농경, 임야 혼합지	불규칙형	1,034	사업지구 지정신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촌지구 (‘15년)	주거, 농경지	불규칙형	124	경계협의	
	청주시 상당구	영운지구 (‘16년)	주거지	불규칙형	141	사업지구 지정신청	
	진천군	태락1지구 (‘16년)	주거, 농경지	불규칙형	126	사업지구 지정신청	
충남	서천군	랑평지구 (‘15년)	주거, 농경지	편위형, 불규칙형	553	경계협의	
	아산시	대음지구 (‘16년)	주거, 농경, 임야 혼합지	편위형, 불규칙형	856	동의서 징구중	
전남	여수시	개도지구 (‘16년)	주거 (도서)	불규칙형	1,114	대행자 선정중	
	함평군	월야지구 (‘16년)	주거, 농경, 임야 혼합지	불규칙형	2,360	대행자 선정중	

참고 2 | 무인기(드론) 활용사례

무인기(드론) 촬영영상을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파악 및 주민설명회



세계측지계 변환 후 무인기(드론) 촬영 영상과의 비교



측량 성과와 무인기(드론) 촬영영상과 대비하여 측량누락부분 확인



수산식품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2회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개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다양한 우수 수산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수산기업들의 우수 수산식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수산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소비자와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원산업 등 국내외 140여개 업체 등이 대거 참가해 우수 수산식품과 최신의 수산기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외 빅바이어 31명을 초청하고 국내 업체와의 현장 상담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수산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종사자들을 위한 기술세미나(양식, 유통, 인증제도),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린이 요리수업, 참치 해체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수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시회 기간중에 귀어귀촌 종합센터 상담실을 별도 운영하여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 가고 있는 귀어귀촌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우리나라 우수 수산식품의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수산식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였다.

참고 1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6. 4. 6(수)~8(금)/서울 COEX B홀(1층 전시장)
- 주최/주관 : (사)한국수산물회/비투엑스포(주)
- 후원 : 해양수산부/한국수산물무역협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주요행사
 - (개막공연) 3인조 전자현악공연/화동입장



-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바이어 비즈매칭 상담회
- (부대행사) 참치해체쇼, 쿠킹클래스, 수산물퀴즈쇼, 수산분야세미나 (양식, 유통, 인증제도) 등

□ 세부내용 (개막식)

구 분	항 목	시 간	내 용
1부	식전공연	10:30~10:55(25분)	· 3인조 전자현악
	내빈소개	11:00~11:02(2분)	· 참석내빈소개
	개막 세레모니	11:02~11:03(1분)	· 수출증대 제창(버튼터치)
	기념촬영	11:03~11:06(3분)	· 기념촬영
	전시회 개요 설명	11:06~11:08(2분)	· 한국수산물회
2부	전시장 순시	11:08~11:40(32분)	· 동선별 관람(총 관람시간)
	이벤트	11:40~11:50(10분)	· 참치해체쇼 관람/시식

□ 부대행사

일시	행 사 명	비 고
4월 06일 ~ 4월 08일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비투엑스포(주)
	국내바이어 초청 상담회	비투엑스포(주)
	수산물 이용한 어린이 쿠킹클래스	바른식습관연구소
	수산물 퀴즈쇼	비투엑스포(주)
4월 06일	활동어망 양식 세미나 (주제: 미정)	국제구리협회
4월 06일	수산물이 좋아지는 영양놀이 비법 (주제: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바른식습관연구소
4월 07일	수산물 유통 세미나 (주제: 수산식품 가정간편식, HMR)	(사)한국체인스��어 협회
4월 07일	수산물 인증 세미나 (주제: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마케팅 전략)	컨트롤유니온

참고 2

서울수산물전시회 개최 현황

구 분	'05년 (제1회)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제11회)
행사기간	5.4~5.7	4.13~4.15	4.26~4.29	3.27~3.30	4.2~4.4	4.8~4.10	3.31~4.2	4.19~4.21	4.18~4.20	4.3~4.5	4.15~4.17
전시공간 (m ²)	2,592	5,184	5,184	7,290	7,290	7,756	7,756	7,290	7,290	7,290	7,776
참가규모	108업체 131부스	134업체 204부스	138업체 280부스	150업체 300부스	133업체 290부스	133업체 290부스	139업체 307부스	127업체 301부스	139업체 288부스	140업체 308부스	140업체 406부스
상담실적	733건 105억원	1,075건 250억원	1,300건 330억원	1,177건 300억원	700건 250억원	817건 307억원	577건 430억원	350건 256억원	370건 280억원	360건 300억원	208건 350억원
국내외 바이어 (명)	1,000여 명	2,297	2,420	2,605	6,304	6,571	8,097	8,151	8,223	8,516	9,158
참관객 (명)	25,000	24,800	28,251	30,106	21,980	15,931	16,169	16,445	16,782	17,461	17,172